

이렇게 들었다

일탈

사람이 생존 중에 아무리 많이 외우고 널리 배운다 하더라도,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문(文讀), 구의(句義)를 또 이해하지 못한다면, 애만 썼을 뿐 아무 소용도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이해를 했다하더라도 좋은 지식을 참되게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배움의 의미가 없다. <출요경>

정창영 연세대 총장이 4월 26일 "구시대적이며 반지성적인 학생운동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 대학 총학생회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총학생회가 지성의 산실인 대학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준엄하게 질책했다.

사건의 발단은 연세대 총학생회의 '재단이사회 난입 사건'이다. 총학생회 임원 20여명은 4월 25일 대학 재단이 사들의 오찬장에 들이닥쳐 이사회 참관 허용을 요구했다. 이를 학교 측이 거부하자 학생회는 농성에 들어갔고 이사회는 무산됐다. 학교 업무 행정이 마비되자 학교 측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학생들의 폭력과 불법을 엄하게 다루려는 움직임은 다른 대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교수를 겁уг한 학생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출교(黜校) 조치'를 내렸다. 동덕여대도 총학생회가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오자 '총학생회 불(不)인정'을 선언했다.

이 세 학교만 봐도 학생운동의 반지성적 행태와 타락상이 심각한 위험수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성의 산실인 대학에서 이런 행태를 벌이는 학생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일까. 대학이 운동권의 눈치를 보며 이들의 일탈(逸脫)에 눈감던 때는 지났다. 순수한 학생활동은 장려하되 폭력과 불법은 용납하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성인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주일(취재부 기자)

교회 나가겠다는 자녀? "우선은 설득을..."

롯데뉴스 독자설문서 '압도적'... "자녀 판단 존중"도 26%

만약 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롯데뉴스(www.buddhanews.com)는 이같은 질문으로 4월 12~25일까지 2주간 독자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총 117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교의 강점을 설명해 자녀가 절에 다니도록 설득한다'는 응답자가 61%인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4%인 16명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답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편 토론에는 불교계가 더욱 포교에 매진해야 함을 강조한 몇 글도 이어졌다. '선전화'라는 네티넴의 독자는 '사찰에 가도 혼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며 '아이들에게 맞는 다양한 포교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익순 기자

롯데뉴스(www.buddhanews.com) 독자여론조사 결과

- ① 종교는 자유이므로 자녀의 선택에 맡긴다 18명(15%)
- ② 교회에 가려는 이유가 합당한가도록 허락한다 11명(9%)
- ③ 불교의 강점을 설명해 자녀가 절에 다니도록 설득한다 71명(61%)
- ④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교회에는 가지 못하게 한다 16명(14%)
- 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명(1%)



봉축 칼럼

조용헌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교수

귀로 해조음 듣고 마음으로 성품보기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불교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 본다. 시간만 나면 자문자답해 보는 문제이다.

20대에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였다.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중시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30대가 되니까 약간 변화였다. '자유를 얻는 종교'라고 생각하였다. 약간 구체화된 것이다.

40대가 되니까 다시 변한다. '불교는 번뇌를 없애주는 종교'라는 생각이 든다. 살다보니까 번뇌가 자꾸 쌓인다.

40대 중반이 되니까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여 있던 번뇌가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번뇌의 무게를 실감하는 연령대가 40대인 모양이다.

어떻게 하면 번뇌를 없앨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중생의 번뇌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이근원통(耳根圓通)'이다.

차들같이 단단한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능엄경(楞嚴經)>의 설명에 의하면 관음보살이 수행했던 방법이라고 되어 있다. 관음보살의 수행법은 귀로 소리를 듣는다. 즉 이근(耳根)을 사용해야만 원통(圓通)이 된다는 것이다. 원통진(圓通眞)에 관음보살이 모셔진 이유는 이 때문이다.

6개의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이근이다. 소리는 동서남북, 사방과 위 아래에서도 귀에 들린다. 그래서 집중하기가 쉽다.

그렇다면 어떤 소리를 듣는가? 아무 소리나 들어도 되는가? 물론 아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보면 4가지 소리를 이야기한다. 묘음(妙音), 관세음(觀世音), 범음(梵音), 해조음(海潮音)이 그것이다. <능엄경>에서도 역시 이 4가지 소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 4가지 소리 중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소리는 바로 '해조음'이다. 해조음이란 바다의 조수(潮水) 소리 내지는 파도소리를 가리킨다.

간단히 말하면 이근원통이란 이 해조음 소리에 집중하는 수행법이다. 해조음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일차조건이 중요하다. 도량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조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근원통을 강조하는 유명한 관음도량들은 공통적으로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 제일의 관음도량으로 알려진 보타도(普陀島)의 '불국거관음원(不取去觀音院)'이 파도치는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다. 이 불국거관음원 입구의 석벽에는 붉은 글씨로 '조음동(潮音洞)'이라고 크게 새겨져 있음을 필자가 직접 확인한바 있다. 이 글씨는 강희황제의 친필로서, 1699년에 새겼다고 한다. 조음동이라는 암굴입구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해조음을 듣는 도량이라는 의미에서이다.

파도가 치면 U자 형태로 생긴 동굴로 '구르릉' 소리를 내면서 파도가 들어오는 구조이다. 불국거관음원에 앉아 있

음에 집중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반문문성(反聞聞性)'의 단계로 진입한다고 되어 있다. 반문문성은 '듣는 성품을 다시 들어보려는 것'이다.

원통의 시작은 해조음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해조음은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특수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본대학의 호타켄지(堀田健治) 교수의 주장은 이렇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귀로 듣는 청각을 통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받아 들인다. 따라서 청각이 발달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 종음과 불쾌함을 조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듣는 도량이라는 의미에서이다. 당연히 여기에 관계된다. 그 소리중에서 파도가 치면서 만들어지는 조음파가 사람 뇌 속의 뇌파를 활성화한다.

파도가 파도끼리, 또는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치면서 가장 영역에서 들을 수 없는 조음파까지 여러 가지 음파를 만들어 내고, 그 중 조음파가 사람의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겐지 교수에 의하면 '해안가에 서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한다. 파도소리가 a파를 만들어 내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다.

낙산사 홍련암에 가면 마루로 된 법당에 사각형의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대략 가로 세로 10cm 정도 되는 크기이다. 옛날부터 이 구멍이 있었다고 한다. 60년대만 해도 이 구멍이 30cm 정도 크기였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오면 위험하다고 해서 법당을 신축하면서 크기가 줄었다. 그렇다면 홍련암 법당의 이 구멍은 왜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필자는 그 이유를 이근원통의 해조음을 청취하기 위한 용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련암은 관음도량이고, 바닷가에 있으므로 이근원통의 경전적 근거와 무관할 수 없다. 법당의 구멍은 해조음을 듣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다. 부처님이 오신 이유는 중생들의 번뇌를 없애주기 위해 오신 것이고, 그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능엄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바닷가의 해조음을 많이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어린이날과 겹치는 5월 5일이다. 동심(童心)은 불심(佛心)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다. 순수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침도 순백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순수인가? 순수를 어리석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순수는 어리석음과는 전혀 다르다. 순수(純善)이지만 어리석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죄업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순수(善)의 세계로 돌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천상천하유아독존'의 선언이다. 이 선언은 존재의 주인이 누구이며, 존재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대가를 통해 얻은 예지는 인류사에 등장한 많은 고등종교들과도 사뭇 달랐다.

불심과 동심으로 돌아가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존재 사이의 관계는 서로의 생명력을 중히 여기는 것만이 진리적 삶이라는 것이 이 선언이 던지는 메시지다. 그러나 인류사의 흐름을 볼 때 아직도 사람들은 이를 각성하지 못한 채 계속 무지와 독선, 분쟁과 파멸의 길을 치닫고 있다.

오늘날에는 산사에도 순수가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불교는 지금 배급주의, 그리고 무교(巫敎)와 점교(占敎)에 의해 너무 많은 영역이 점령당했다. 부처님오신날이 오면 절로 달려가 연등을 달면서도 수많은 불자들이 그 참의미를 잃어버린 채 어리석음을 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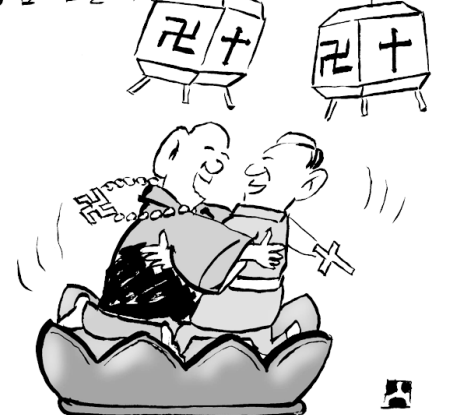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은 우리 불자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날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들은 먼저 이 날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참회와 자성의 날로 삼아야 한다.

결국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떤 이념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다. 순수(純粹)의 고한(高閑) 불심과 동심을 일구어 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역행해 가느냐도 바로 이 땅의 주인인 사람들의 몫이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 부처님은 우리 곁에 오신 것이다. ■도수(경림도량 학주)

'연대' 민영 심민섭

부처님오신날? 예수님 오신날??



"불교가 어렵다는 편견을 여지없이 깨뜨린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처님의 위대한 십대 제자의 삶과 깨달음을 한국 최초로 한 권의 책에 알뜰하게 담았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 길에서 떠난, 길은 가리키는 사람' 담겨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씀으로 만고불변의 자비와 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부처님의 곁에는 늘 함께 수행 정진하는 천이백오십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십대 제자로 일컬어지는 열 분은 부처님의 문신이자 그림자였다. 그 십대 제자들의 극적인 삶을 통해 크고 작은 '차이'를 조화의 근본으로, 잘나고 못한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을 이상으로 삼는 불교의 세계를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부처님의 십대 제자

성각스님 편저 | 신국판 400쪽 | 값 14,700원 |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부처님 되는 씨를 마음에 심자!"

BBS 부산불교방송과 광주불교방송에서 수년간 절찬리에 방송되었던 '금종스님의 참나를 찾아서' 책으로 집대성!



외제 집중 감동만점

'이야기 아이고 아메! 우롱스님과 나란히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나의 허벅지를 사정없이 꼬집었다. '어디서 나왔느냐?' '임에서 나왔습니다.' '임은 어디서 나왔느냐?' '목구멍에서 나왔습니다.' '목구멍은 어디서 나왔느냐?'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뱃속은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부처님 되는 씨를 심었느냐?' -본문중에서

천은사 금종스님 수행일기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금종스님 지음 | 신국판 296쪽 | 값 10,000원 | 전국 유명서점에 있습니다.